

4·9 총선 광주·전남 누가 뛰나

6 전남 서부권

채일병 재선 도전, 이정일 행보 관심

해남·진도

신당 채일병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 2005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범여권 통합과정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 신당에 입당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채 의원에 맞서 민화식 전 해남

무소속 민화식·신당 윤목현씨 발빠른 움직임 '출마설' 박지원씨 목포 또는 광주 남구로 가다

군수와 윤목현 전 무등일보 부사장 등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3대 민선 해남군수를 역임한 민 전 군수는 지난해 12·19 해남군수 보궐선거에 뛰어들려다 이번 총선출마를 위해 도전을 접었다는 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상대후보 불법도청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최근 사면·복권된 이정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입기에 못다한 지역현안을 매듭짓기 위해 출마를 강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곳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목포 또는 광주 남구로 목표지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용납 못해”

이명박 인수위 1차 업무보고 “공직자 변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된 문화관광부 모국장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파문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1차 종합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좀 더 알아

이낙연 3선가도... 선거구 조정 변수

함평·영광

농촌선거구 인구하한선인 10만 5천 명이 무너져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영광+장성, 나주+함평으로 나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제16대와 17대에 이어 3선을 노리는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신당 장현씨 재도전... 이상선·정광일씨 물밑행보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광주 광산으로 출마 가다

신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4년 전 탄핵 역풍을 이겨낼 만큼 탄탄한 지지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이 의원에 맞서 신당에서는 장현 호남대교수의 도전이 예상된

후보자 군에서 멀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선 함평지역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육군군수관리학교장(준장)과 호남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를 지냈다.
‘안중근 청년아카데미’ 대표이자 인터넷신문인 브레이크뉴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정광일 씨도 민주당 후보로 예비등록을 한 상태다.

최인기 수성에 배기운 前의원 도전

나주·화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최 의원은 호남에서는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다, 원내 대표를 맡고 있어 당에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표발관리에 돌입했다.
신당에서는 배기운 전 의원과 임성훈 (주)위텍인스트루먼트 대

벤처기업가 임성훈씨 정호선 前의원 출사표 한나라 김경남·민노 전종덕씨도 표심 다져

표이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16대 의원이었던 배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무소속인 최 의원에 패했지만, 신당 창당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 다시 한 번 의원직에 도

다. 정호선 전 의원의 출마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후보 전남도선거대책본부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경남 씨와, 교육정보통신인수위원장 원종열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당에서 전종덕 전 전남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심을 다지고 있다.
/총행기기자 redplane@

“3월까지 불능화... 2010년 폐기 완료”

외교부, 인수위에 ‘북핵 폐기 로드맵’ 보고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까지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상반기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며 2010년까지 핵폐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핵폐기

“자만·오만에 빠져선 안된다”

천주교 정의채 몬시뇰, 추 당선인측에 쓴소리

천주교 원로인 정의채(83) 몬시뇰이 1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대해 “이 당선자나 그 측근들은 자만이나 오만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몬시뇰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임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고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협상도 이 때 시작된다.
정부는 이어 핵폐기 일정에 따라 2010년까지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과 핵폭발장치(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는 등 핵폐기를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로잡힌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는 행태를 보이는 등 걱정스런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초적인 논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큰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든다”며 “그런 예로 정부조직을 줄이되 공무원 수는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의 실책으로 꼽히는 6만명에서 10만명에 달하는 코드인사를 놔두고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ad includes a prominent phone number 062-373-3322 and a website URL 062-33611004. It lists several propertie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such as 349,000 and 548,000.